

서 면 답 변 서

소 속	평창군의회	질문의원	지 광 천 의원	
답 변 자	평창군수 (기술지원과장)	일자	질의	2018.10.24
			답변	2018.10.25
회 의	제24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(4차)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			

질문요지

- 평창군멜론영농조합 운영과 관련 신규하우스 지원사업 관련 처리 내용 탈퇴회원 박스지원 여부, 박스구입 자부담 추가 징수 등 법인 운영에 대한 내역과 탈퇴 사유

답변내용

상기 질문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서면답변 드립니다.

- 평창군멜론영농조합법인 결성(등록)은 2014년 2월4일부터이며 최초 39명의 회원으로 결성 운영하였고 2018년10월 현재 35명 (남자 23농가, 여자 12명)으로 운영중임.
- ※ 영농을 같이하므로 가능한 부부동반 가입을 유도하고 있음
- 법인 가입시 출자금은 1인당 200,000원을 받으며, 년회비를 1인당 100,000원을 받아 법인을 운영하고 있음.
- ※ 출자금 200,000원은 탈퇴시 되 돌려줌
- 금년도 신규 회원가입이 없고 탈퇴 회원이 늘면서 법인운영 기본 수입은 회비 3,500천원 정도임(35명 x 100,000원)
- 매년 연간 법인 운영비는 시설운영비(수리비 및 관리, 전기료등 수수료), 회의(매월1회 이상)식대, 선별장작업 인부임 등으로 매년 15,000천원~20,000천원이 소요되므로 운영이 어려운 실정임
- 원활한 법인 운영을 위해 법인회의 및 규약에 준에 다음과 같은 부담금 수입으로 충당함

- ① 회원 개별지원되는 신규하우스 설치시 : 1동/330㎡당 600,000원
- ※ 보조 비율과 관계 없이 자부담금 부가세 환급금으로 납입토록함
- ※ 지원 수혜를 받고 멜론재배 규모가 늘면서 향후 수익이 많아지므로 법인 운영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부담금을 내도록 함

- ② 공동지원되는 포장박스 활용시 : 박스 1개당 1,500원
- ※ 구입단가 : 2,200원/개당(보조 1,100원, 자부담 1,100원)
- ※ 추가부담금 : 1,500원-1,100원 = 400원
- ※ 멜론 1동 330㎡당 170박스 활용시 68,000원 추가부담

- ③ 멜론 선별장 활용시 : 1동 300㎡재배 멜론 선별시 100,000원
- ※ 공동선별비용, 스티커, 안내장, 훼손방지망 등에 대한 부담금을 내도록 함

○ 2018년 법인 예상 총 수입금 = 23,900,000원

- 회비수입 : 100,000원 x 35명 = 3,500,000원
- 신규 하우스 부담금 : 600,000원 x 8동(330㎡형) = 4,800,000원
- 박스활용 부담금 : 400원 x 15,000개 = 6,000,000원
- 선별장 활용 부담금 : 100,000원 x 96동(330㎡형) = 9,600,000
- ※ 금년도 선별장 실제 운영 : 21농가 96동분 15,000박스 기준

○ 탈퇴 회원에 대한 포장박스 미 공급 사유

- 현재 멜론통합브랜드박스는 대외신용도 제고를 위해 멜론지원사업 중 법인공동사업으로(법인명의 및 생산자 품질표시) 공동제작 활용하므로, 탈퇴회원이 법인 박스로 출하하여 반송 처리 및 소비자 불만요인 발생시 평창멜론 이미지가 훼손되므로 금년도 탈퇴회원에게는 공급하지 않음
- 탈퇴회원은 필요시 개별로 매년 준수품질인증을 신청하여 박스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

< 평창멜론 명품화 확대추진 관련 문제점 및 개선해야 할점 >

- 평창군에서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11년간 신규재배시설 등 멜론 명품화를 위해 지속 지원하고 있으나

<문제점>

- ① 4년이상 연작한 시설 내 토양 염류집적 및 선충피해 등으로 재배기술이 낮고 재배의욕이 낮은 농가에서 재배가 어려워 포기하는 농가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(일부농가 돌려짓기 추진),
- ② 통합브랜드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법인공동생산 및 선별 유통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나, 법인 회원간 의견 불일치 등으로 상호 불신 사례가 일부 제기되면서 탈퇴 회원이 나타났고,
- ③ 5년이상(보조사업 관리 기간 이후) 재배한 농가중 일부는 타작물 단체의 수익성이 높을 품목(방울토마토 등)으로 전환하므로서 전체적인 재배면적이 줄고 있는 실정이며,
- ④ 멜론 시설재배는 기술 및 노동집약적 작물로 재배가 다소 어렵고 1주 1과 기준으로 생산하므로 실패시 피해가 심하여 신규 희망농가가 많지 않아 단기간 내 대면적 확대가 어려운 실정임

<개선해야 할 점>

- 평창명품멜론 명성을 지속 유지하기 위해 재배를 포기하는 농가는 제외하고 재배의욕이 강한 정예농가 및 신규 재배농가를 중심으로 평창군멜론영농조합법인 운영을 보다 보완 강화하여 명품멜론을 지속 생산 할 수 있도록 하고(개별 생산 유통에는 경쟁력 없음)
- 재배면적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기존 시설내 토양개량 및 시설 보완, 타작물 돌려짓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지원 전체 면적의 50~70% 수준은 지속 재배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
- 향후 평창명품멜론 명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기존시설 운영·관리 및 추가 시설확대에 대한 지원 및 지도에 노력하겠습니다